

자연과 풍속의 내면화

이경호

문태준의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의 세계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의 첫 번째 시집은 몸으로 겪어내는 삶의 풍경을 그려 보이는 세밀도(細密圖)였다. 그것은 토속과 궁핍이 어우러진 산촌의 빽빽한 풍속도를 보여주었다. 가난한 산촌의 풍속도라는 점에서 그 세계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추억의 자리로 들어앉아 있다. 그런데 문태준은 첫 번째 시집 속에서 추억의 자리를 생활의 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그 세계는 마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몸이 생생하게 부대끼는 생활의 자리를 부러놓는다. 마음의 자리로부터 몸의 자리로 변화되는 순간 고요함의 분위기는 사라져 버린다. 『수런거리는 뒤란』(창작과비평사, 2000)이라는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몸으로 부대끼는 세계 속에는 자연의 생명력과 생활의 활력이 충만하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산촌의 〈뒤란〉 풍경을 문태준은 법석거리고 삶의 장터 풍경으로 부각시켜 놓는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문태준의 두 번째 시집은 몸으로 겪어낸 삶의 풍경을 마음의 자리에 심어 놓으려는 시선으로 가득하다. 그 시선은 유년시절에 겪은 생활의 풍속과 자연의 풍경을 연계시켜 성숙한 삶의 이치로 내면화시키려는 욕망을 간직하고 있다. 그 시선 속에서 산촌 생활의 풍속과 자연의 풍경은 단지 삶의 독특하고 절실한 추억이라는 자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그 시선은 추억의 자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유년시절이라는 과거를 현재의 삶으로 비끼러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다. 그 실마리는 과거의 풍속이나 풍경을 재현해내는 데 있지 않고 풍속과 풍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의 속성이나 삶의 이치를 포착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풍속과 풍경의 내부를 응시하려는 욕망이 그의 두 번째 시집을 이끌어가고 있다. 삶의 내부를 응시하려는 시선이 그의 시세계를 고요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만들며 느린 호흡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 삶의 서사성을 도모했던 첫 번째 시집에 비하여 두 번째 시집에서 서정성이 한층 강화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시세계는 요즈음 깊은 마음의 지형도를 그려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신작들도 그러한 지형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러한 지형도의 구체적인 열개를 살펴보도록 하자.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에 비끼러매 주는 실마리를 문태준은 이번 신작시에서는 〈꿈〉의 내용으로 표현해놓고 있다.

아파트 18층에 누워 살면서 밤은 꿈도 없이 스스름해졌다
 소꿈은 길한 꿈이라는데 뜨막하게 소꿈을 꾸는 때가 기증 좋다
 내 소꿈은 소와 자주 싸우는 소꿈이다
 내 걸음걸이는 얼른얼른 어딜 가자는 것 같고
 소는 또 그럴 생각 없이 머뭇거리고 목을 젖혀 뻗뻗하게 버틴다
 간혹 혀를 빼 누런 소가 길게 울기도 한다
 들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 나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오던 그 소와 아주 닮았다

내 소꿈은 소와 자주 싸우는 소꿈이어도

소꿈을 꾸는 날에는 하루가 빈 걸상도 있고 악기점도 있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 수유리까지 멀리 나 있다

—「꿈」 전문

오늘날에는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인이 그러한 생활양식을 문제삼는 까닭은 아파트 거주가 <꿈도 없이 숨숨해>진 삶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꿈>은 물론 현대의 문명생활이 거두어간 삶의 근원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를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꿈>은 보다 개인적인 과거의 삶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다. 그 체험은 <들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 나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오던 그 소>에 대한 것이다. 유년시절의 <소>에 대한 체험은 그의 생애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체험이나 추억은 그것대로의 자족적인 존재 의의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들쭉서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의 그러한 역할은 <내 소꿈은 소와 자주 싸우는 소꿈이다>라는 표현 속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꿈>에 나타나는 <소>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로막으려 한다. 가로막음의 구체적 몸짓은 <얼른얼른 어딜 가자는 것 같>은 나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목을 젓혀 뻗뻗하게 버>터내는 것이다. 그러한 <소>의 방해 몸짓은 일차적으로 분주한 나의 일상과 욕망을 가로막는다. 유년시절의 체험과 추억이 현재의 생활 속에 <꿈>으로 되살아나 그의 삶을 비판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내면적 가치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꿈>은 그런 가로막음의 몸짓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소꿈>의 보다 깊은 내용은 <하루가 빈 걸상도 있고 악기점도 있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 수유리까지 멀리 나 있>는 풍경 속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한 풍경은 현대문명의 분주한 속도감을 저지하려는 <소>의 몸짓이 아니라 현대문명이 간과해버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복원하려는 <소>의 몸짓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 몸짓은 <목을 젓혀 뻗뻗하게 버>티는

자세가 아니라 <간혹 혀를 빼 누른 소가 길게 울기도> 하는 모습 속에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소>의 긴 울음소리처럼 삶의 긴 여정 속에는 분주한 생활의 자세로는 정복할 수 없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도 있을 것이며,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연주해보지 못한 악기들의 섬세한 울림과 <하루가 빈 걸상>처럼 여유로운 배움의 이치도 간직되어 있을 법하다.

<소>의 긴 울음소리처럼 삶의 긴 여정은 <운문사 뒤뜰 은행나무>의 단풍들고 낙엽 지는 풍경 속에도 마련되어 있다. <천년을 살았을 법한 은행나무>의 긴 삶의 여정이 보여주는 속 깊은 이치는 <그늘>의 공간 속에 <느리게> 떨어져 쌓이는 은행잎의 모습 속에 구현되어 있다. 천년을 뺏어나간 가지와 잎이 만들어낸 <그늘이 내려앉을 그늘자리에 노란 은행잎들이 쌓이고 있>는 풍경은 소멸의 자리에 겹쳐지는 생의 가장 장려한 울동을 형상화한다. 생과 죽음이 장려하게 겹쳐지는 울동은 무엇보다도 <느리게 느리게 내려 제 몸그늘에 쌓이>는 동작에서 이루어진다. <느리게 느리게 내>리는 그 동작을 <흘러내린다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미 시인은 그 동작에서 <나무가 황금사원 같더라>는 깨달음을 선취해내고 있다. <황금사원>의 형상은 은행잎의 색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몸으로 마련한 생의 깊은 그늘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느린 동작으로 오체투지하는 은행잎의 동작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생의 그늘이 <가재미>처럼 납작하게 눌린 것이라면, 그리고 <가재미>의 한쪽으로 쏠린 눈들처럼 삶을 향한 시선과 죽음을 향한 시선이 겹쳐지는 것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신작 시편들 중에서 죽음의 자리를 탐구하는 「가재미」 연작이야말로 앞으로 그의 세 번째 시집을 대표할 만한 성과로 주목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붙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떠칠째 밀리며 밀리며 물

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끓어지고, 숯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맑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 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가재미 3—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전문

이 작품은 행간의 여백을 넓혀놓는 표현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넓혀진 행간의 여백은 삶과 죽음의 세계에 가로놓인 막막한 거리를 암시한다. 시인은

〈빈집〉과 〈아궁이의 재〉를 통해 가파른 삶과 죽음의 관계를 탐구하려 한다. 시에 등장하는 〈그녀〉는 아마도 화자의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지칭하는 듯하다. 〈그녀〉가 거주하는 곳이 〈빈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저 먼 나라에는 출입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단서조항으로 어머니, 또는 〈그녀〉의 죽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화자인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서 〈물은 얼어 끓어지고, 숯검댕이 아궁이는 켜〉한 풍경을 목도한다. 그 〈빈집〉의 을씨년스런 모습은 그대로 가혹한 〈그녀〉의 생을 증거하고 있다. 〈나는〉 가파른 생을 마감한 〈그녀〉에게 〈저 먼 나라에는 출입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짐작해본다. 그러한 생각과 더불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러한 행위는 죽음의 세계에서라도 생의 가혹한 자취를 혹시 〈그녀〉가 돌아볼까 봐 생의 가혹한 자취를 지워버리려는 배려의 마음씨에서 비롯되었다. 가혹한 생의 과정 내내 〈그녀〉가 갈망했던 생의 온기와 〈불의 감각〉이 저편 죽음의 세계에서는 제발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곳, 죽음의 세계에는 〈눈보라조차도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생의 냉기와 가파름도 편안한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 그런 조건이야말로 〈가재미〉의 외로 쓸린 눈이 죽음의 세계에서 찾아내고 싶은 존재의 속성일 것이다. 시 속에서 〈나〉의 어머니, 〈그녀〉가 나아간 죽음의 세계를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나 죽음의 반대편인 생의 현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가혹한 지경에 놓여 있다. 지금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서 있는 〈늙은 고욤나무〉가 그러한 어머니의 가혹한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의 정황이 그러한 현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 혹은 어머니의 죽음은 「가재미 2」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재미 3」에서처럼 〈그녀〉의 생이 지상에서 맞이한 가혹한 현실은 얼어버린 몸으로 비유된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몸

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옷, 꽃상여>를 입고 있다. 죽음이 가혹한 지상의 현실과 이별하는 <그녀>에게 축복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두꾼들이 그녀의 무덤을 등 둥근 물고기로 만들어 주었다/세상의 모든 무덤은 붉은 흙 물고기이니/물 없는 하늘을 헤엄쳐 그녀는 어디로든 갈 것이다>라는 표현 속에 절실하게 담겨져 있다. 이승에서 가장 사랑하였으나 가장 힘겨운 생을 견뎌낸 <그녀>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치러야 하는 마음은 그러한 축복의 기원만으로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이별의 슬픔이 <가슴이 붉은 새>의 울음을 새삼 떠올리게 만든다.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춤하다

넋쿨에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 본 사이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빛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빛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릴 꺼내 떠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 속으로

불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 낼 수 없는

—「누가 울고 간다」 전문

「가재미 3」이 행간의 여백을 넓혀 이승과 저승의 막막한 거리감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면, 이 작품은 간결한 시행 처리로 사물의 모습과 움직임의 날 날에 스며들어 있는 울음의 속성을 세세히 음미하게 만들어준다. <밤새 잘 그랑거리다/눈이 그쳤다>는 정적의 분위기가 홀로 있다는 느낌과 마음의 텅 빈 상태를 환기시킬 때 불현듯 들려오는 <가슴이 붉은 새>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의 슬픔을 북받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슬픔이 보낸 자의 것이 아니라 떠나간 자, <그녀>의 것이라면 그 슬픔은 북받치기도 어렵다. 그 슬픔이 <문풍지로 들어온/겨울빛처럼/여리고 여>린 것

이어서 자취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슬픔을 속으로 삭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울음이 <가슴 속으로/붉게/번지고 스며> 마음의 상처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시의 화자는 절감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는 <이름도 못 불러 본 사이/울고/갈 것>을 수락해야 하는 존재의 조건 속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별의 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리고 죽음 곁에서 겪어내야 하는 삶의 조건은 모두가 가혹한 상처들을 마음의 시선 속에 안겨준다. 그러한 마음의 시선이 이번의 신작 시편들을 빚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가재미」 연작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신작들은 문태준의 시세계가 <마음시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유년시절에 경험한 산촌의 자연과 풍속은 세밀도로서의 가치를 포기하고 성숙한 시선으로 포착해야 하는 삶의 내면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니 그릇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자연과 풍속이 본래부터 그 자체로 삶의 내면적 가치를 오롯하게 육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저 자연과 풍속의 육화된 내면을 골똘하게 응시하려는 욕망을 요즈음 들어 간직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자연과 예스런 삶의 풍속을 뒤적거려 삶을 죽음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아마도 한동안 그의 시세계를 이끌어갈 것 같다.

(필자 | 문학평론가)